



성북동 길상사 극락보전에서 열린 개원법회에는 3천여 불자가 동참했다.



김수환추기경이 최초로 법회식에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 군포미화원 '폐지 온정'

#### 매화복지관에 1년 모은 기금 쾌척

군포시 미화원들이 그동안 틈틈히 모아온 기금으로 식물을 구입하여 13일 군포 매화복지관(관장 수현스님)에 기탁,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군포시 소각장에 근무하는 김하규씨의 7명의 미화원들은 지난 1년간 소각장에 유입되는 폐지를 수집하여 매각한 기금으로 라면 10박스와 육류 2박스를 구입하여 1백여 지역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매화복지관에 전달한 것.

매화복지관장 수현스님은 "이들의 따뜻한 온정이 IMF한파로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군포소각장 미화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폐지를 수집하여 노인들께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원>

### 뉴스 & 뉴스

#### 김종명·박근련씨 '불이상'



불이회(회장 홍리회)가 주관하는 제 13회 불이상 수상자에 연구분야에 김종명씨(동국대 강사·사진 왼쪽), 실천분야에 박근련씨(천마재활원 원장·사진)가 각각 선정됐다.

UCLA대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김종명씨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동양철학적 모색' '한국불교학계의 현실과 발전방향' 등 논문을 발표, 불학연구에 매진해 왔다. 또 박근련씨는 33년간 장애자 재활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내년 1월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거행한다.

#### 공창복지관 장학회 발족

공창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은 23일 개관 3주년 기념 및 자원봉사자·후원인 감사행사를 가졌다.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복지관 직원 등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관 사업소개를 비롯, 부산불교운전기사 김미란씨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 정인경씨의 축하공연과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한편, 공창사회복지관은 22일 공창 장학회를 발족하고, 후원회원을 모집 중이다.

#### 23일 속초복지관 송년의 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23일 오후6시 속초시 아남프라자 삼성생명 대회의실에서 97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작은 정다운 밤'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에서는 자원봉사대상, 후원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속초종합복지관 장학후원회(회장 최세영)가 관내 학생 15명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권을 전달했다.

#### 부산 파라미타 한돌 산행

파라미타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창립 1주년을 맞아 14일 금강산 산행 법회를 가졌다.

중고생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산행은 범어사에서 집결해 계명암에서 금강산, 내원암에서 금강산 등의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다.

#### 김선도씨등 실행 선고

불교방송 공영화사업의 피의자 송병욱(前 상무)·김선도(前 경리부 차장)씨가 15일 열린 선고공판(부장판사 김길중)에서 각각 징역 2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병욱 김선도씨 변호인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 "맑고 향기로운 도량되길"

## 길상사 개원법회 대원각 시민청정도량으로

### 김수환추기경 종교벽 넘어 '축사'

요정 대원각이 지난해 9월 소유주 김영한(81)보살의 보시이후 5개월의 산고 끝에 청정 수련도량 길상사(주지 청학)로 새롭게 태어났다.

성북동 길상사는 14일 극락보전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비롯 석주(철보사 조실) 관음(직지사 조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현호(송광사 부방장)스님 등과 김영한 길상사 참전주, 박정수 원불교교무, 권익현 한나라당 고문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천주교 김수환추기경이 참석해 종교화합의 상징 현장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추기경이 불교의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를 초월한 불교와 천주교의 아름다운 기쁜 만남은 지난 20여년간 법정 스님과 종교의 벽을 넘어 우정을 나누온 장익주교(천주교 춘천교구장)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

흐뜻한 감동은 김추기경이 주일미사 때문에 법당에 늦게 들어 서자 법정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인사를 주고 받는데서 시작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치사에 이어 김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복잡한 도시생활에 자신을 돌아

### 군승단 비리 자체징계 움직임

#### "총회결의와 상반"…종단결정 '관심'

비리의혹 군법사 신병처리 문제로 고심해온 군승단이 해당군법사들을 종단 차원의 조사 의뢰에서 후퇴해 자체징계를 하려고 한다는 의욕이 제기되고 있다.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한 공문에서 4명의 비리의혹 군법사에 대해 종단차원의 조사와 함께 자체 징계의 필요성을 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장 법사들

보며 명상하는 습어가 아쉬웠다"며 "길상사가 맑음과 평화스런 향기가 솟아나는 영혼의 쉼터로 정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스님은 "시대에 모범이 된 수행처는 모두 가난과 어려움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웠다"며 "길상사도 선택된 가난 즉 청빈함이 스며있는 가난하고 향기로운 도량이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참전주 김영한보살은

"저는 죄많은 여인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시주했습니다"고 소감을 밝혀 진한 감동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장자 김선영(경기도고 1년)이 법당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고 참전발원문을 봉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원법회 후에는 화합의 연 등 밝히기 행사가 이어져 선 수행도량으로 문을 연 길상사를 밝혀 주었다.

이로써 조사 의뢰를 맡은 총무원 호법부의 결정 여부에 귀추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에 대해 96%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했으며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고 앞으로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서울·경기지역 거주 6개직업 1백20여명을 조사했다.



나리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대회가 13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렸다.

### "장기기증 참여하겠다" 73%

#### 생명나눔회 수도권 시민 '인식도' 조사

이에 따르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또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가 장기기증에 미약한 이유에 대해 전체의 59%가 '유교적 관습때문이다'고 답했으며 '시술의 두려움'과 '가족들의 불이해'도 각 15%에 달했다.

뇌사판결에 대해서는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39%에 달했으며, 뇌사이식법이 제정된다해도 장기이식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경제살리기 결의 부산 실행단체 10곳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여성불자회 등 부산 10여개 실행단체는 13일 부산역광장에서 나리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동참한 3백여 불자들은 국산품 애용, 해외여행 자제 등을 결의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영국사 성역화 사업

#### 증심사 취벽루 복원 추진

천태산 영국사 성역화사업과 무등산 증심사 취벽루 복원이 IMF 한파로 국가적 긴급재정 속에서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영등군이 올해부터 추진해온 영국사(주지 청원) 성역화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4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이 확정됨 따라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등군은 올해 사업비 1억3천여만

### 추진

원을 들여 영국사 대웅전과 요사채 보수했으며, 내년에는 금당터 발굴조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돼 흔적만 남아 있는 증심사(주지 영조) 취벽루를 정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3억원을 포함, 총 8억여원을 들여 내년부터 복원한다. 취벽루는 복원되면 불교신도들의 법회장소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이용된다.

총장이 신부인 가톨릭 종합대학인 서강대가 17일 신학전공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학부제시행 이후 첫 입학생인 현 2학년 학생들이 3학년부턴 시작되는 전공선택에서 신학전공을 지원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원자가 없어 전공이 폐지되는 첫 사례다.

이에 비하면 불교종합대학인 동국대 불교학부는 그래도 다행이다. 52명중 28명이 불교학(13)인도철학(14) 선택(1,스남포함 19)을 각각 선택해 전공폐지라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군인대자나, 휴학생 8명을 제외하더라도 전공하는 학생들이 14명이나 돼 서강대 신학전공 폐지를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다는 학부생과 학교의 고

민이 있다. 동국대는 올해부터 불교학부 정원을 80명에서 70명으로 줄이고 불교대학원의 정원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불교학을 대학원 중심의 연구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에서도, 학부권 교무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수나 학생들 모두 스스로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열의없는 불교학부의 존재위기는 생각보다 바를 수 있다는데 견해를 일치시키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종교성향을 파악해 반영하지는 의견도 없을 정도"는 혜원스님(선학과 교수)의 말은 불교학부에 대한 내부 우려가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불교정신은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는데 있다. 학교, 교수,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동국대만이 아닌 불교전체의 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강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서강대 신학전공 폐지

불교학부에 대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학부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교학부 교수들은 학교측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연구환경이나 학생들의 학업연거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흠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송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1, II
- 불국사·석굴암 1, II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